교통체증 참지 못하고 강으로 뛰어내린 남성

▲ 사진=texasnewstoday.com

극심한 교통체증에 지친 남성이 수심 30m 강물로 뛰어들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

지난 9일 루이지애나주 아차팔라야강을 가로지르는 베이슨 대교에서 10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다. 이 다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길다. 그런데 2시간여 동안 도로에 갇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한 운전자 지미 이바 제닝스(26)가 갑자기 수심 30m 아차팔라야강이 뛰어내렸다.

하지만 강은 깊었고 물살도 거세 그는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 세 시간 동안 표류하던 그는 가까스로 한 무인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제닝스는 구조된 후 강물로 뛰어든 이유에 대해 "다리 밑을 내려다보니 강기슭까지 그리 멀지 않아 보였다. 수영이나 하다 헤엄쳐 돌아올 생각이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곧 베이슨 대교가 더는 보이지 않았다. 물살은 너무 거셌고, 수면과 마찰로 어깨도 다쳐 몇 번이나 익사 위기를 넘겼다. 강을 떠다니며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면서 "돌아오는 보트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깨달았다.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수영도 안 할 것" 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제닝스는 공공 피해 혐의로 기속된 상태다.

로스쿨 합격한 두 팔 없는 청년

신체 장애를 딛고 법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이 감동을 전했다.

▲ 사진=nairaland.com

중국 쓰촨대학교 법학과 출신의 펑차오 씨(26)는 최근 동제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했다. 그는 7세 무렵 고압 전압기에 감전돼 두 팔을 잃었다. 다행히 하반신의 신경은 손상 범위가 크지 않았다. 그는 잠시 좌절의 시간도 가졌지만 이후 몸의 일부가 불편한 것이 큰 장애가 아니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집중했다.

펑 씨는 스스로에게 "남들 모두 가지고 있는 두 팔은 없지만 나는 남들보다 강한 정신과 튼튼한 두 다리가 있으니 멈추지 않고 도전과 시도를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우수한 성적으로 쓰촨대학교에 입학했고 4년 동안 석사 학위 로스쿨 진학을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펑 씨는 최근 상하이 소재의 동제대학교 로스쿨 입학 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대학원 측은 두 발로 글을 써야 하는 펑 씨를 위해 일반 응시생보다 30분 시간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펑 씨는 이를 거절하고 일반 학생들과의 똑같이 시험을 치루고 합격 통지서를 품에 안았다.

펑 씨는 "최선을 다해 꼭 좋은 성과를 거둬 나와 같은 장애인들이 힘을 얻어 살아가는데 하나의 동기를 주는 사례가 되고 싶다." 고 말했다.

거짓 병가 내고 축구 보러 갔다 중계카메라에 잡혀 '해고'

▲ 사진= inews.co.uk

거짓 병가를 내고 축구를 보러 간 영국 회사원이 결국 해고됐다.

지난 7일,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덴마크의 유로 2020 준결승전이 치러졌다. 평소 열렬한 축구 팬이었던 니나 파루오키(37)는 이 경기를 보기 위해 회사에 거짓 병가를 냈다. 그는 "친구가 겨우 얻은 티켓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덴마크에 한 골 뒤지고 있었던 잉글랜드가 동점 골을 터트린 후,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면서 그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다.

파루오키는 "내 얼굴이 온 뉴스에 도배됐다. 전화가 그야말로 폭발했다." 고 말했다. 문제는 그의 상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해고를 통보 받았다.

회사 측은 "영국 모든 이가 보고 싶어 하는 경기였고, 회사 여건만 됐다면 직원들에게 그런 중요한 축구 경기를 관람하도록 독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파루오키는 경기를 보기 위해 거짓 병가를 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고 해고 입장을 설명했다.

다행히 파루오키의 사연이 전해진 후 그에게 축구 관련 일감을 맡기겠다는 업체가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잉글랜드는 파루오키가 관람한 준결승전에서 덴마크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유로 2020 결승에 진출했으나, 12일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혈투 끝에 패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